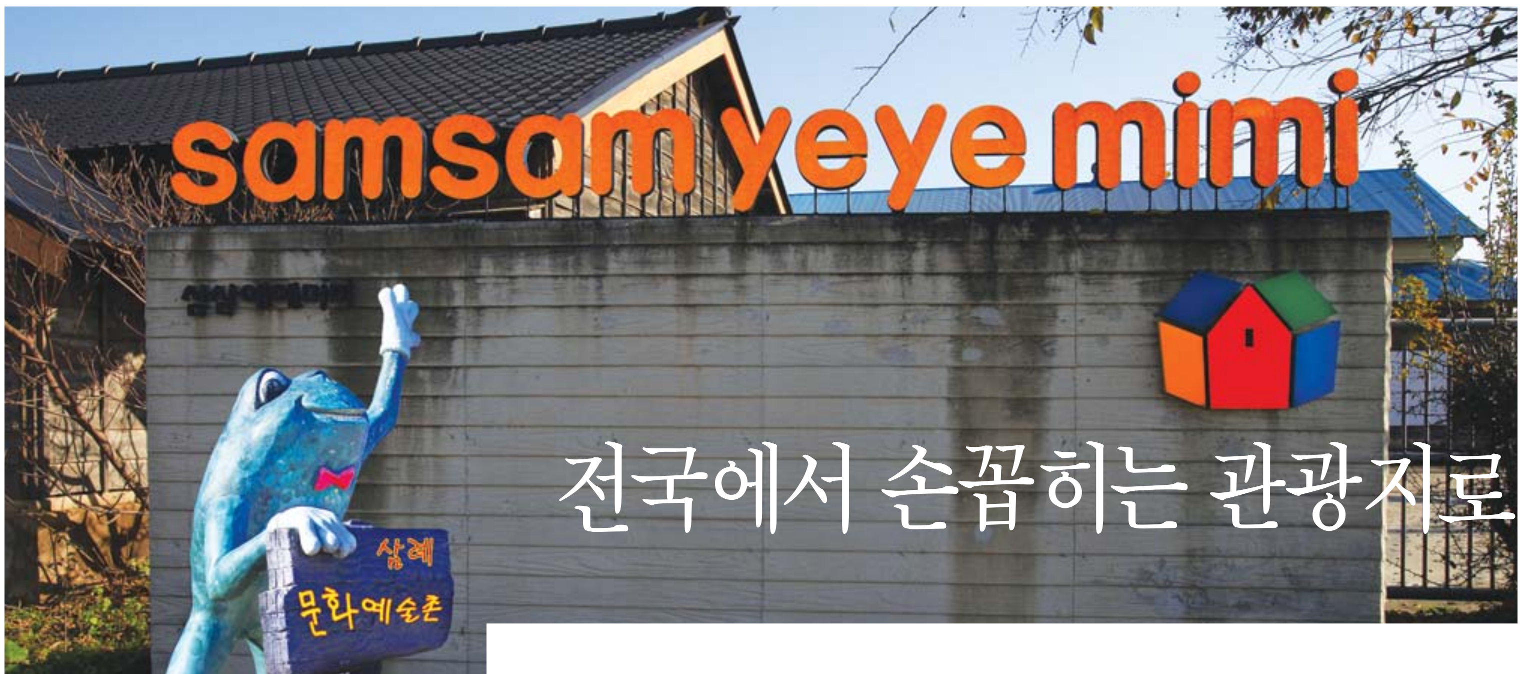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훌쩍'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이었던 양곡창고를 예술로 승화시킨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4년차를 맞았다. 지난 3년간 삼례문화예술촌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 짧은 기간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훌쩍 성장한 삼례문화예술촌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디자인뮤지엄

디자인포럼

책공방 견학

한국관광 100선 이어 '열린 관광지'에 선정
디자인뮤지엄 · 책박물관 등 들어서
각 관별 특화프로그램들 관광객들에 큰 인기
숙박체험관, 책마을 연계 콘텐츠 선보일 듯

삼례문화예술촌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통령상 수상, 근대문화유산 등록 문화재 지정,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수많은 사업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지역 상권에도 크게 기여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주관한 '완주군 관광기반구축 빅데이터' 조사에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간 삼례읍 상권 매출이 7.1% 증가하는데 삼례문화예술촌이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데 이어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도 선정되면서 국비 1억 이상을 확보했다. 관광객도 전년 대비 16% 이상이 늘어났으며, 타 시군과 문화예술단체에서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각 관별 특화프로그램

예술촌에는 VM아트미술관, 디자인뮤지엄, 김상림목공소, 막사발미술관, 책공방아트센터, 책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각각 특화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VM아트미술관(관장 이기전)은 지난 5월 15번째 기획전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16번째 기획전시 '진화 I'를 선보이고 있다.

단순한 형식의 변화를 뛰어넘어 추상형태인 작가의 내면세계와 의식을 시청각매체를 통해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 것. 평면적인 진화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심층적인 의미의 진화를 추구하는 국내 뉴미디어아트 작가 5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디자인뮤지엄(관장 김태호)은 지난달 말 '팜디자인포럼(Farm Design Forum)'을 개최했다. 유수의 해외 및 국내 전문가와 대학생, 지역주민이 참석해 '지역개발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 경제, 교육, 라이프스타일, 환경 등 종합적 개발사례를 점검하고 미래 신성장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밖에도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창의력 교육이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김상림목공소(관장 김상림)는 청장년을 대상으로 목공관련 이론, 실습이 접목된 '청년목수학교'를 5월초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5개월간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10명의 청년들이 목수로서 발을 디뎠다. 오는 10월 그 결과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막사발미술관(관장 김용림)은 해외작가 12명이 참여한 30여점의 기증 작품을 전시 중이다. 아직 기획단계이지만 레지던시를 통해 기증된 작품은 봉동읍 상장기 공원 경관조성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밖에 도예교육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책공방북아트센터(관장 김진섭)는 '완주 책책책학교'를 통해 십여 명의 청년들을 기획부터 유통까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지역출판전문가로 배출했다. 4월 수료식에서는 그들이 제작한 소양면 귀농이야기, 완주군 SNS 활동 등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소개되기도 했다. 향후 로컬 콘텐츠로 채워진 지역서적을 꾸준히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책박물관(관장 박대헌)은 지역주민과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꼬마 그림책 거장' 기획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6주간의 그림책 교육을 마친 꼬마거장 15명의 작품이 책박물관 특별전시실에 현재 전시되어 있다.

또한 5월말까지 사연이 담긴 도서 등을 수집했던 제1회 '나의 애장서' 전은 하반기에 관객들을 찾는다.

▲삼례문화예술촌의 업그레이드

완주군은 삼례문화예술촌을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화장실, 편의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관광안내체계 등을 정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2차, 3차 부지조성사업도 진행한다.

하반기 재개관을 앞두고 현재 리모델링 중인 숙박체험관은 예술촌과 책마을을 연계하는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은 "삼례문화예술촌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서 다수의 수상경력과 공모사업 선정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삼례문화예술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문화예술경험을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안겨 드리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꼬마그림책 거장전

단체 관람